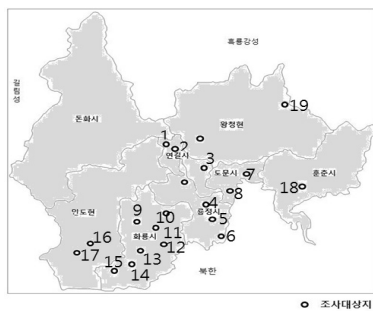


중국현지조사는 본 조사(2014/12~2015/02,07)와 보충조사(2015/08)를 통해 86건의 현지조사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이 중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한족 주거는 19건이다.

중국 현지조사 대상지는 조선족 마을 인구가 밀집되어 있으며 교통이 발달되어 변화과정이 가장 뚜렷한 연길시, 룡정시, 도문시, 화룡시, 훈춘시, 안도현을 선정하여 본 조사와 보충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족주거 조사대상은 조선족 집단거주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였다.(표1 참조) 조사 내용은 평면스케치, 사진촬영, 면담 조사를 행했다. 면담조사 내용은 건축년도, 거주자의 출입, 취침, 식사, 취사, 단란 공간 등이다.

Table 1. List of Research Subjects in Local China

연번	위치	건축년대	평면유형
1	연길시 이란진 대암촌	불명	식당중심A
2	대암촌	2000	복도중심형
3	연길시 소영진 소하룡촌	불명	식당중심A
4	룡정시 동성룡진 태평촌	2000	복도중심형
5	태평촌	2000	식당중심C
6	룡해촌	1980	복도중심형
7	도문시 량수진 룡호촌	2010	복도중심형
8	룡호촌	1980	식당중심B
9	화룡시 투도진 룡수촌	불명	복도중심형
10	룡성진 부흥촌	1980	복도중심형
11	부흥촌	2010	식당중심C
12	서성진 서성촌	2000	복도중심형
13	팔가자진 상남촌	1980	식당중심C
14	상남촌	2000	복도중심형
15	동성진 관동촌	불명	식당중심B
16	안도현 송강진 남도촌	2010	복도중심형
17	북도촌	2000	식당중심B
18	훈춘시 마천자향 도로촌	1980	식당중심C
19	왕청현 백초구 백초구촌	2010	복도중심형



1.3 선행연구 고찰 및 용어설명

(1) 선행연구

중국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거주환경에 대한 학술자료를 분석한 연구를 보면, 주택의 평면을 다룬 연구는 생활방식과의 관계, 주택의 평면구성 및 현황, 주택의 변천 및 변화과정, 전통민가의 지역적 분포, 취사 및 설비와 같은 시설적인 측면의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위의 연구를 토대로 조선족 주거의 평면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면, 특정 지역의 특성 반영, 한반도 주거의

전통적 방식의 유지, 혹은 타민족과 영향관계에 대해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 변화나 변천의 관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근대화나 현대화라는 측면에서는 도시주택이나, 아파트 등의 평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농촌주택은 변화보다는 유지라는 속성이 좀 더 강하게 내재되어 있으므로, 중국 조선족의 주택을 변화의 관점보다는 한반도 주거문화의 지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아진다.

Table 2. Literature related to this Study

저자	발표 시기	제목	연구내용	출 처
임금화 외 3인	2005	중국 연길시 근교 농촌주택의 변천에 관한 조사 연구	·연길시 하룡촌 소하룡 마을 조선족 주택의 주거형태의 변화 분석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의 평면, 재료, 창문, 설비의 변천을 기술	한국농촌 건축학회 논문집
임금화 외 2인	2008	두만강 북안 조선족 이수마을 주택평면의 변화	·화룡시 승선진 이수마을의 시기별 주거평면의 특징 분석 ·이주초기부터 2006년까지의 주택평면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따른 변화과정 기술	한국농촌 건축학회 논문집
김준봉 외 2인	2012	조선족 농촌주거의 근대화 과정에 따른 변화 연구	·룡정시 룡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전통주택의 현대화 과정과 변화 분석 ·물리적 요소(구조체, 건축면적, 각종 설비)와 인문 사회적 환경(인구, 생활, 환경)을 중심으로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과정을 검토	한국생태 환경건축 학회 논문집
김준봉 외 3인	2012	중국 조선족 농촌마을의 공간구성 및 세대별 배치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룡정시 룡산촌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의 공간구성 변화 분석과 10년 후 변화된 마을의 입지와 배치현황, 주택 및 주거단위 배치 특성을 기술	대한건축 학회연합 논문집
김준봉	2000	중국 동북지역 한인동포(조선족) 전통민가 평면 분류와 특성	·동북 3성 조선족 전통민가의 평면형식의 지역적 분포 특성의 유형분류와 변천관계의 구조적 특성을 규명	충북대 박사학위 논문
허성결 외 2인	2015	중국연변지역 조선족 농촌주택의 시기별 변천에 대한 조사 연구	중국정부 사회정책에 변화에 시대 구분의 관점으로 연변 지역 조선족 주택평면의 변화를 의 분석 검토하였다.	한국농촌 건축학회 논문집

이러한 의미에서 농촌주택을 변화와 변천의 관점에서 다루면서, 본 연구와 관련된 평면유형을 분류한 연구를 살펴보면 <표 2>³⁾과 같다.

조선족 농촌주거의 변화와 변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족과 한족의 농촌주거에 주목하여, 공간구성형태의 특징과 그 변천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매우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족과 한족의 농촌주거가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택 공간구성형태 및 기거양식이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으며, 변화의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분석, 연구하고자 한다.

3) 허성결 외 2인, 전계서

(2)한족주택 용어 설명

강은 부분적 온돌로 방의 1/3의 면적을 차지하며 강의 위치에 따라 남강(南炕), 북강(北炕)이라 부른다. 한족 사합원에서는 ‘당옥’을 ‘외옥(外屋)’ 또는 ‘암칸(暗間)’이라고 하나, 연변 한족 주택에서는 ‘당옥’을 ‘부엌’으로 사용함으로써 여기서는 ‘부엌’이라 칭한다. 가족의 평상시 활동공간은 ‘내옥’이며, 부엌은 식당과 동시에 취사, 난방, 작업 공간 등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이다. 한족 주택에서의 ‘내옥’은 동쪽에 있는 침실은 ‘동옥’(東屋)이라 칭하고 서쪽에 있는 침실을 ‘서옥’(西屋)이라 칭한다. 그리고 ‘동옥’ 뒤에 방을 ‘대옥(大屋)’, ‘서옥’ 뒤에 방을 ‘소옥(小屋)’이라 칭하며 대부분 ‘대옥’과 ‘소옥’은 저장 공간으로 사용한다.

Table 3. Explanation of terms about houses of the Han Chinese

평면 구성	부엌(당옥)	강(쪽구들)
		
내옥(內屋)	동옥(東屋) 서옥(西屋)	

2. 시기별 한족 농촌주택의 특성

중국정부의 정책변화를 보면, 1960년대~1970년대 <인민공사>가 설립되고 <문화대혁명>이 일어난다. 그리고 1980년대~1990년대는 대외적으로 <개혁개방>한 시기로 이때 많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2000년 이후는 <사회주의 신 농촌건설>운동이 진행되어 농촌사회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4). 이에 여기서는 1970년대 이전(인민공사 및 문화혁명기), 1980~1990(개혁개방기), 2000이후(사회주의 신농촌건설기)로 구분하여 한족 농촌주택의 각 시기별 특징을 분석한다.

2.1 평면유형

한족 주택은 복도를 통해 각 단위공간을 연결시키는 유형(이하 ‘복도중심형’으로 칭함)과 식당 또는 부엌을 통해 각 단위공간을 연결시키는 유형(이하 ‘식당중심형’으로 칭함)이 관찰된다.(표4 참조)

후자인 <식당중심형>은 부엌을 경유해서 강으로 출입하는 1~2실형(이하 ‘원초형’으로 칭함)과, 부엌을 중앙에 배치하고 부엌을 경유하여 각 단위공간을 출입하게끔 하는 유형(이하 ‘식당중심형-A’으로 칭함), 평면의 한쪽에 치우치게 부엌을 배치하고 부엌을 경유하여 각 단위공간을 연결시키는 유형(이하 ‘식당중심형-B’로 칭함), 식당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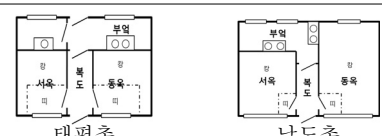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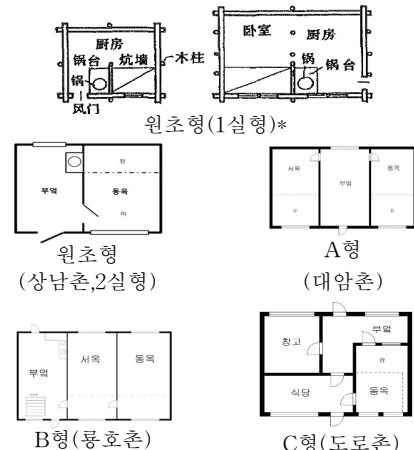
* 원초형(1실형 주거) : 張馥寬, 吉林民居,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5에서 인용
4) 허성걸의 2인, 전계서

평면 중앙전면에 부엌과 분리하여 위치시켜 각 단위공간을 연결시키는 유형(이하 ‘식당중심형-C’로 칭함)이 있다.

먼저 <복도중심형>의 평면은 ‘복도’, ‘동옥’, ‘서옥’, ‘부엌’으로 구성되며,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동옥(부모)과 서옥(자녀)이 있다. 동옥이나 서옥 뒤쪽에 저장 공간 또는 부엌이 있어, 동옥의 난방은 부엌에서, 서옥의 난방은 저장 공간에 아궁이를 설치하여 행하는 경우가 많다.

<식당중심형-A>평면은 부엌 좌우에 내옥(동옥, 서옥)을 배치한 한족주택의 기본적인 평면형식이다. 부엌에 주출입구를 배치하고, 부엌을 경유하여 각 단위공간에 출입하게 한다. 이 부엌에서는 취사와 식사, 가족단란이 이루어진다. 식사는 부엌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그 주위에 가족이 둘러앉아 하는 기거양식(이하 “입식형태”로 칭함)으로, 평시에는 각자의 방에서 개인생활을 하다가 식사하는 과정에서 가족 간 교류가 이루어진다.

Table 4. The plan type of houses of the Han Chinese

유형명	조사 사례
복도중심형	 <p>태평촌 남도촌</p>
식당중심형	 <p>원초형(1실형)* 원초형(상남촌, 2실형) A형(대암촌) B형(몽호촌) C형(도로촌)</p> <p>도면에서의 점선 부분은 강을 의미함, *은 문헌 인용</p>

2.2 1970년대 이전

(1)평면유형

사합원은 한족 주거의 전형적인 주택이지만 연변의 농촌지역에서는 보기 어렵다. 한족의 동북지역으로의 이주는 청나라 중엽부터 시작되었으며, 대부분 산둥성(山東省), 산서성(山西省)에서 이주하여 왔다. 사합원은 보통 3~4대(자녀+부모+조부모 또는 증조부모)가 함께 기거하는 주거형태인데 반해,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한족 이주민은 1대~2대(자녀+부모) 만이 이주해 옴으로 인해 연변지역의 한족 주거는 대부분 본체와 부속채로만 구성되었다.

중국현지 실측조사를 통해 확보한 1970년 이전 건축된 주택평면은 없으나,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평면을 발달론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면, 이주 초기(1960년대 이전) 연변지역 주거는 길림민거5)에서 보고한 <1실형> 주거>(원초형, 표4 참조)에서 <2실형> 주거로, 더 나아가 <식당중심형-A형>으로 변화되어 왔다고 추정할 수 있다.

(2)기거양식

가. 출입형식

초기 한족 농촌주택의 출입구는 1개로, 주택내로의 모든 출입은 중앙에 배치되어 있는 부역을 경유 하게끔 되어 있다. (그림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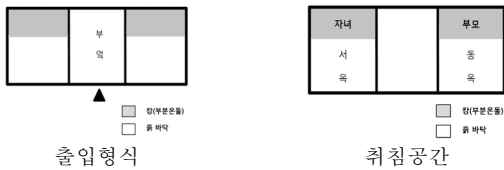


Figure 1 The pattern of entry and sleeping before 1970s

나. 취침 및 식사

한족의 농촌주택은 동옥, 서옥, 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면이 많고, 침실 개수는 평면유형에 따라 다르나, 보통 2~3개의 침실을 가진 사례가 가장 많이 관찰된다. 한족은 '장유유서' 사상을 바탕으로 가족 내 위계가 높은 부부가 동옥에서 취침하고 위계가 낮은 자녀들이 '서옥'에서 취침한다. 그리고 식사는 부역에서 높은 식탁 주위에 둘러 의자에 앉아 식사를 하는 입식형태이다.(그림 1 참조)

Table 5. The plan type of houses from 1980s to 1990s

유형명	조사 사례
식당중심형 B	(룡호촌)
식당중심형 C	1(상남촌)
	2(도로촌)
복도중심형	1(부흥촌)
	2(룡해촌)

2.3 1980년대~1990년대

(1)평면유형

이 시기에 속하는 중국현지 실측조사 자료는 총 5건으로, <식당중심형-B, C>가 3건, <복도중심형> 2건의 주택이 관찰된다.(표 5 참조)

5) 張馭寰, 전게서

먼저 <식당중심형-B>는 부역, 서옥, 동옥 순으로 부역은 한쪽에 치우치게 배치되어 있는 평면으로, 각 실로의 출입은 부역을 경유하여 토방을 거쳐 칸으로 진입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이 유형은 한족이 조선족 농촌주택을 이주하여 개조한 것으로, 평면구조는 정지를 중심으로 좌우에 부역과 방을 배치하는 조선족 주택과 유사하나, 부역과 실을 벽으로 구획하고 전면에 토방의 통로를 설치하여 칸으로 진입시킨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식당중심형-C-1>은 부역, 칸, 동옥으로 구성되어, 부역을 경유하여 각 실로 출입하고 있다. 이평면은 부모와 자녀의 개인생활을 분리하기 위해 나중에 개조한 것으로, 2실형 주거(표3 참조)의 부역 북쪽이 자녀공간으로 바닥을 온통구들(전면온돌)로 만들었다고 한다. 현재는 자녀가 분가하여 창고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녀의 일시적 방문 시에는 취침과 식사 등을 '동옥'의 부모와 함께 한다. 개조 이전 2실형 주거에서는 '부역'에서 취사와 식사 했었으나, '동옥'을 온통구들(전면온돌)로 개조하면서 식당을 만들었으나, 아직 온통구들(전면온돌) 위에 밥상을 놓고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다리를 꼬아 앉아서 식사하는 기거양식(이하 "좌식형태"로 칭함)을 보여주고 있다.

<식당중심형-C-2>은 식당, 동옥, 창고, 부역으로 이루어졌다. '식당'으로 주택 출입을 하며 '식당'의 동쪽에는 '동옥'이 배치되어 있고, '동옥'의 북쪽에는 부역, '식당'의 북쪽에는 창고가 배치되어있다.

이 형식의 주택내로의 출입은 식당을 경유하여 이루어지나, 하나의 내옥(동옥)만 있다. 이 집에는 2인만 거주하기 때문에 내옥에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며 내옥의 칸(쪽 구들)에서 입식 생활을 한다.

초기의 '원초형' 주택에서는 취사와 식사, 접객, 난방 등의 모든 생활행위가 '부역'에서 이루어져 왔다. 점차 주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식당'과 '부역'을 분리 구획하여, 취사와 난방은 '부역'에서, 식사와 접객은 '식당'에서 이루어지는 평면으로 변해 왔다. 이 같은 평면의 변화는 한족 음식의 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름의 비산, 냄새와 연기를 차단하기 위함으로, 부역을 중앙복도 끝에 위치시켜 격리하는 것 또한 부역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책으로 생각된다.

<복도중심형-1>은 복도를 중심으로 좌우에 내옥을 배치하고, 내옥은 복도에 면한 문을 통해 출입한다. 이 주택은 기단위에 복도와 부역 바닥을 같은 높이로 마감하고, 사람이 걸 터 앉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내옥 바닥을 복도 바닥보다 높게 마감되어 있다. 그리고 서옥바닥은 온통구들(전면온돌)로 마감하고 있다. '창고' 2개는 '부역'의 동쪽에 일자로 배치되어 있다. 가족 수가 많은 가구가 거주하는 형태이지만 가족 수가 줄어들면서 현재(2015)는 폐가되거나, '동옥'을 온통구들(전면온돌)로 개조하고 '서옥'과 '소옥'을 쓰이나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내로의 출입은 복도를 통하여, 부모는 '동옥', 자녀들은 '서옥', '소옥'에서 거주한다. 주택 내에서는 대부분 입식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서옥'에서만 좌식형태의 기거양식을 취한다. 식사와 취사는 부역에서 이루어지며 입식식탁을 사용하고 있다.

이 시기에는 내옥이 하나밖에 안 되는 주택이 많이 건

축되는데 이는 1978년 실시된 개혁개방의 영향으로 자유 시장이 개척되면서 많은 젊은 층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하고 1978년부터 실시한 1가구 1자녀라는 계획생육 정책에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2)기거양식

가. 출입

이 시기의 한족농촌주거에서 출입구는 1~2개로 평면유형에 따라 다르다. 식당중심형의 주택에서는 2개의 출입문이 있다. 식당에 있는 것이 주출입구이고 부엌 쪽에 있는 것이 부출입구로, 부출입구는 부엌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버릴 때 방으로 냄새가 흘러들어가는 걸 방지한다. 복도중심형의 주택에서는 복도에 출입구가 있고, 복도를 통해 각 기능 공간을 연결된다. 이는 부엌에서 취사 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를 차단하여 주고 추운 동북의 겨울에 차가운 바람이 실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고 있다. 또한 외부의 시선을 차단할 수 있고 동시에 부엌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그림2 참조)

나.취침

한족 농촌주택에서 침실은 동옥, 서옥, 소옥으로, 침실 개수는 평면유형에 따라 1~3개로 다르다. 1개의 침실을 가진 것은 <식당중심형-C>에서만 보인다. 그리고 3개의 침실을 가진 사례는 복도중심형에서 관찰되는데 침실 전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그들의 가족 수와 관계되는 것으로 2인 가족이 비교적 많고, 대부분 자녀는 외지에서 일 또는 공부를 하고 있으므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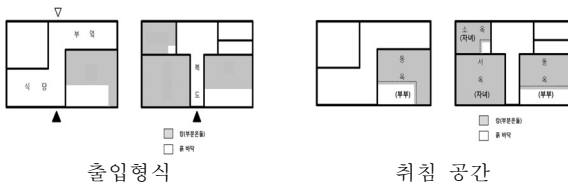


Figure 2 the pattern of entry and sleeping from 1980s to 1990s

다.식사

한족 농촌주거에서의 식사 공간은 식당 또는 부엌이나, 부엌이 식사공간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비교적 많다. 가족 수가 많을 때 내옥의 칸에 다리를 걸터앉아 간단히 식사하는 경우도 보인다.(그림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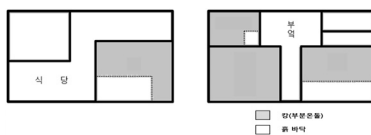


Figure 3 Dining and cooking spaces from 1980s to 1990s

2.4. 2000년 이후

(1) 평면유형

이 시기 현지 실측자료는 총 10건으로 <표 6>과 같이 <복도중심형>이 7건, <식당중심형-C>가 2건, <식당중심형-A>가 1건으로, 비교적 <복도중심형>이 많이 관찰된다.(표3 참조)

먼저 <식당중심형-B> 평면은 창고, 정지, 부엌, 침실 순으로 공간을 배치하고 각 실로의 출입은 부엌을 경유하게끔 구성되어 있다. 정주간을 중심으로 좌우에 부엌과 방을 배치하는 조선족 주택평면과 공간배치가 유사한 반면, 부엌과 실을 벽으로 구획하고 전면에 토방의 통로를 설치하여 칸으로 진입시킨다는 점에서는 상이하다.

표6의 <식당중심형-C-1> 평면은 식당, 동옥, 서옥, 2개의 부엌으로 이루어졌다. 동·서옥의 북쪽에 각각 하나의 부엌을 가지고 있는데 면담조사에 의하면 이런 평면은 가족 수가 적으므로 '동옥'은 주인이 거주하고 '서옥'은 세를 주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 실측조사 당시 '서옥'에는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저장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Table 6. The plan of houses after 2000

유형명	조사사례	
식당중심형B	(복도촌)	
식당중심형C	1 (태평촌) 2 (부흥촌)	
복도중심형	1(상남촌) 2(대암촌)	
	3(태평촌) 4(룡호촌)	
	5(서성촌) 6(남도촌)	
	7(고성촌)	
	None Scale, 도면의 점선은 칸임, * 문헌인용	

표6의 <복도중심형-1> 평면은 '복도', '동옥', '서옥', '부엌', '저장 공간'으로 이루어져, 복도를 중심으로 양쪽에 내옥(동옥-부모, 서옥-자녀)이 위치하고, 내옥 뒤쪽에는 저

장 공간과 부속이 있다. 이 부속에서는 '동옥'의 난방을, 저장 공간의 아궁이에서는 서옥의 난방을 한다. 주택내로의 출입은 식당을 경유하며, 식사는 '동옥'에서 주로 하는데 강의 면적이 넓어짐에 따라 강 위에 좌상(좌식상)을 놓고 식사하는 좌식형태나, 띠실(토방)의 입식식탁에서 식사하는 입식형태를 혼용하고 있으며, 가족 간의 단란은 대부분 '동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표6의 <복도중심형-2> 평면은 복도, 동옥, 서옥, 부속, 소(小)옥, 거실, 2개의 창고로 구성되어 있다. 이 형은 '거실'을 중심으로 양쪽에 복도가 있고, 복도의 좌우로 '동옥'과 '서옥'이 있다. 강과 거실의 뒤쪽에는 '소옥'이, '동옥' 뒤쪽에는 부속이 위치한다. 거실과 소옥의 사이에는 2개의 저장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 '동옥'과 '서옥'은 온통구들(전면온돌)(강)로 되어 있는데 '소옥'에는 봉당(띠, 地)가 남아 있다. '동옥'의 난방은 부속에서, 서옥의 난방은 소옥 봉당(띠, 地)의 아궁이에서 한다. 이평면은 자녀의 분가, 임대세대 등 두 세대가 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게 배려된 설계이다.

<복도중심형>평면에서의 부속은 북측 복도 끝, 즉 내옥(서옥 또는 동옥) 뒤쪽에 위치한다. 이는 한족 음식은 주로 기름으로 볶는 것으로, 조리 과정에서 냄새나 연기가 많이 발생함으로 부속을 격리 구획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대지 폭이 좁은 경우에는 각 단위공간을 전후로 배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1970년 이전, 1980~90년대, 2000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한족 농촌주택의 평면변화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관찰된다.

첫째 주택의 '내옥'(동옥 또는 서옥)의 1/3정도 강(炕, 쪽구들)이고 2/3 정도가 토방(띠, 地)으로 구성된 평면에서, 침실(室)바닥 전체가 온돌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복도중심형-8의 서옥 참조) 이와 같은 실(室)바닥의 전면 온돌화는 방열면적을 증가시켜 중국동북지역의 추운겨울을 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한 방책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취사와 난방 행위외의 대부분 생활이 '동옥'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 '동옥' 주변의 저장 공간 또는 소옥을 '동옥'으로 편입 확장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평면구조는 부속을 중심으로 좌우에 내옥(동옥, 서옥)을 배치하던 것에서, 식당을 중심으로 한 <식당중심형>으로 변하고, 더 나아가 복도를 통해 각 단위 공간을 연결하는 <복도중심형>으로 변해 온 경향이 있다.

(2) 기거양식
가. 출입양식

이 시기의 한족 농촌주거의 출입구는 1~2개로 평면유형에 따라 다르다. 즉 <식당중심형> 평면 주택에는 주출입구(식당)와 부출입구(부속)가 있어, 부출입구는 음식물 쓰레기 및 난방연료의 반출 반입, 환기 채광 등으로 이용된다. 그리고 <복도중심형>평면 주택에서는 복도에 설치된 주출입구 1개만 있다(그림 4 참조)

나. 취침

이 시기 한족농촌주택의 침실은 동옥과 서옥으로 구성되며, 평면유형에 따라 침실은 1~3개로 다르다. 침실이 1개만 있는 것은 <식당중심형>에서 관찰되고, <복도중심형>에서는 3개의 침실을 가진 사례가 있다. 3개 침실의 주택에는 2인의 가족만이 거주하고 하나의 침실이 비어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녀들이 외지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림4참조)

다. 식사와 취사

한족 농촌주택에서는 일반적으로 토방인 부속의 식탁에 둘러 앉아 식사하는 입식이다. 이것이 점차 부속에서 '식당' 또는 '동옥'으로 식사장소가 이동되고, 좌식과 입식형태를 혼용하는 것으로 변한다. 즉 <식당중심형> 주택에서는 식사장소를 부속에서 식당으로 이동하여 입식형태로 식사한다. 그러나 <복도중심형> 주택에서는 부속을 축소하고 '내옥'(동옥)의 강을 확대하여, 이를 식사장소로 한다. 이 유형에서의 식사는 강 위 좌식밥상에 둘러앉은 좌식형태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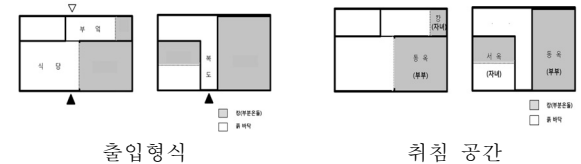


Figure 4 The pattern of entry and sleeping of rural houses after 2000

3. 조선족과 한족의 농촌주택의 변화 비교

3.1 주택평면

먼저 선행연구(6)에서 발표한 조선족 농촌주택의 변화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표 7 참조)

Table 7. Change of the plan of houses of the Korean-Chinese

년대	평면	평면변화의 특징
~1960년대 이전	방, 정지, 창고, 방, 외양간	-외통과 양통 유형의 평면 -정지를 중심으로 한 평면구조 -정지에 인접한 <외양간>있음. -<남녀유별>, <장유유서>에 따른 사용 공간의 구획 분리.
1960~1970년대 (인민공사화)	방, 정지, 창고	-외통과 양통 유형의 평면 지속 -정지에 인접한 <외양간>이 소멸됨과 동시에 큰 창고로 개조됨.
1980~1990년대 (문화대혁명, 계획생육, 개혁개방)	방, 정지, 창고	-실 폭이 넓은 외통 유형의 평면 -실내 공간을 상호간 개방적인 <통간형 평면>으로 발전
2000년 이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창고, 방, 정지	-통간 및 양통 유형의 평면 -통간형 평면을 유지하며 주택내로 <욕실, 화장실>이 도입됨

6) 허성결외 2인, 전계서

1960년대 이전 조선족 주택 평면은 정지를 중심으로 <남녀유별>, <장유유서>라는 원칙에 따라 공간을 구분 배치하고, 부엌과 일체화된 정지에 인접해서 창고와 외양간을 위치시키는 것이었다.

1960년대 들어 인민공사화라는 정책 시행으로 인해 개인소유 가축이 마을 공동축사로 이동되어 주택내부의 외양간이 없어진다. 그리고 문화대혁명, 개혁개방, 남녀평등 사상의 일반화, 가족 수의 감소 등으로 주거 공간이 상호간 가변적이며 개방적인 평면(이하 '통간(通間)형'으로 칭함)으로 변한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사회주의 신 농촌건설운동으로 옥외 화장실이 실내 공간으로 편입되는 등의 변화가 조선족 주택평면에서 관찰된다.

Table 8. Change of the plan of houses of the Han Chinese

년대	평면	평면변화의 특징
1970년대 이전 (인민공사화)		-부엌을 중심으로 좌우에 동, 서옥 배치, 부엌을 경유한 실내로의 출입 -장유유서를 기본으로 주거 공간의 구분 사용(부모-동옥, 자녀-서옥) -강(쪽구들) 사용
1980~1990년대 (문화대혁명, 계획생육, 개혁개방)		-복도를 중심으로 주거기능을 연결하는 평면과, 전면에 식당 또는 부엌을 배치하는 평면 출현 -부엌과 식당을 분리하는 평면 -강(쪽구들) 사용 지속됨.
2000년 이후 (사회주의 신농촌건설)		-강 면적의 확대 또는 침실의 온통구들(전면온돌)화가 관찰됨. -복도형 평면이 주류로 건축됨.

다음으로 한족 농촌주택 평면변화의 특성은 위의 표8과 같다.

1970년대까지 한족 농촌주택 평면은 남녀 간의 공간분리가 명확하지 않고, <장유유서>라는 관습에 따라 부엌을 중심으로 좌우에 침실을 분리 배치하는 것이 특징적으로 다른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표 8 참조)

1980~1990년대에는 주거 실내 환경의 쾌적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식당중심형>과 <복도중심형>(이하 '개실(個室)형'으로 칭함)평면이 등장한다. 이 중 <식당중심형-B>평면은 한족이 이주하여 조선족 주택을 개조한 것이다. 그리고 2000년대 건설된 주택 10건 중 2건의 침실 바닥이 온통구들(전면온돌)로 바뀌는 등의 부분적인 변화 이외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는다.(표6 참조)

마지막으로 조선족과 한족 농촌주택의 변화과정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보인다.

70년대 이전 한족 주택의 평면에는 변화가 없고, 조선족 주택 평면에서는 외양간 소멸이라는 부분적인 변화가 관찰되나, 1980~1990년대에는 서로 다른 상이점이 관찰된다. 즉 조선족 주택은 정지를 중심으로 모든 공간을 통합한 통간(通間)형 평면으로 변하는 반면, 한족주택에서는

주거의 쾌적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한 개실(個室)형 평면이 등장하고, 2000년 이후에는 일부 한족 농촌주택 침실 바닥 전체가 온통구들(전면온돌)로 바뀌는 경향이 관찰된다.(표6 참조)

3.2 기거양식

(1). 출입방식

먼저 조선족 주택의 경우, 1~7개의 출입구가 남녀로 구분하여 사용되어 왔으며 이와 같은 풍습은 인민공사화, 문화대혁명 때까지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개혁개방기(1980~90년대) 이후, 남녀 평등사상의 일반화, 가족 수의 감소로 인해 주택내의 방과 방, 방과 정지가 통합되어 주택 실내가 하나의 큰 공간으로 변한다. 이로 인해 남녀구분이 없어지고 출입문 개수가 줄어든다. 반면 한족 전통주택의 주출입구는 부엌에 1개만 있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복도중심형> 평면의 경우에는 1개, <식당중심형> 평면의 경우에는 2개의 출입구가 설치된다.

Table 9. Comparison table of change of residence style of the Han Chinese and the Korean-Chinese

	과거		현재	
	조선족	한족	조선족	한족
출입	-1~7개 -남:옷방,한옷방문 -여,어린이 :정지문,고방문,한옷고방문 -남녀노소 유별	-부엌문 1개	-정지문 1개 -남녀노소 공용 -출입문수 감소	-1~2개 -주출입구(복도,식당) -부출입구(부엌) -남녀노소 공용 -출입문수 증가
취침	-남:옷방,한옷방 -여,어린이 :정지,고방,한옷고방 -온통구들(전면온돌)위 이불	-부부:동옥 -자녀 :서옥,소옥,대옥 -강(쪽구들)위 이불	-정지(온통구들(전면온돌) 위 이불) -방 :입식(침대)	-부부:동옥 -자녀:서옥 -온통구들(전면온돌) 또는 강위 이불
식사	-남:옷방,한옷방 -여, 어린이 :정지, 부스꺼 -좌식(쪽상)	-부엌 -입식(의자, 탁자)	-정지, 부스꺼 -좌식(쪽상) -남녀 구분 소멸	-동옥, 식당 -동옥: 좌식(쪽상) -식당: 입식 -좌입식 혼용
취사	-부스꺼 -좌식	-부엌 -입식	-정지 -좌입식 혼용 -취사공간 확장	-부엌 -입식
단란	-온돌방, 정지	부엌	정지	식당 또는 동옥

(2)취침 공간 변화

조선족 농촌주택에서는 남녀로 분리된 공간에서 온통구들(전면온돌) 위에 이불을 펴고 자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핵가족화, 남녀평등 사상의 일반화와 함께 남녀노소를 구분하는 질서가 없어져 가며, 침실에 침대를 도입하는 경향도 관찰된다. 그리고 한족의 경우, 장유유서라는 가족위계에 따라 분리된 침실(동옥, 서옥)의 강(쪽구들)위에 이불을 펴고 자는 습속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

(3)식사 및 취사 공간의 변화

조선족 전통주거에서 남성은 옷방(윗방) 또는 한옷방에 별도의 밥상에서, 여성과 어린이들은 정지나 부스꺼에 차린 쪽상에서 식사하는 등 남녀노소간의 식사공간은 명

확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개혁개방 이후 정지주변의 모든 방들을 하나의 큰 공간으로 통합되어, 정지에 모든 가족이 모여 쪽상에서 식사하는 것으로 변한다. 그리고 취사는 부스개(아궁이)의 가마솥 옆에 앉아서 하는 것이 전통적이었으나, 개혁개방 이후 싱크대, 냉장고, 전기밥솥 등 입식설비 도입, 취사도구 증가로 인해 취사공간이 확장되고 좌식과 입식취사를 겸용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한족의 경우, 식사는 가족이 부엌의 탁자에 모여 앉아 식사하는 입식형태가 전통적으로, 이 풍습은 <식당중심형> 평면 주택이 등장되어도 지속된다. 그러나 <복도중심형> 평면 주택으로 변하면서 입식형태와 함께, '내옥' 바닥이 온통구들(전면온돌)로 변한 주택에서는 온돌 바닥위에 쪽상을 사용하는 좌식과 입식형태를 혼용하는 기거양식도 관찰된다.

(4). 단란 공간의 변화

조선족 전통 농촌주택에서의 가족 단란은 남녀로 구분된 단위공간에서 이루어져 왔으나, 개혁개방이후 주택실내가 방과 정지사이의 칸막이가 없어진 하나의 큰 공간으로 변해, 이곳(정지)이 남녀노소 구분이 없는 모든 가족의 단란장소로 된다. 반면 한족의 경우, 전통주택에서는 토방인 부엌에서 식사하는 과정에 가족단란이 이루어져 왔다. 그리고 개혁개방이후 한족 농촌주택이 개실(個室)형 평면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단란은 식사 시간에 식사 공간(식당, 부엌, 동옥)에서 행하는 전통적 습속이 지속된다.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현지조사를 통해 동일한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과 한족 주거를 대상으로 상호 비교 검토를 통해 서로 다른 민족주거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명확히 하고자 한 것이다.

먼저 한족 농촌주택 평면과 기거양식 변화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 내옥(동옥, 서옥) 면적의 약 1/3정도만이炕(炕,쪽구들)이고 나머지는 토방(地,地)이었던 것이 일부실(室)의 바닥전체가 온돌로 진행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둘째 가족생활의 중심공간이 부엌(식당) 중심에서 '동옥' 중심으로 변함과 동시에 '동옥' 주변의 저장 공간과 소옥이 '동옥'으로 편입 되어 확장되는 경향이 관찰된다.

셋째 평면구성은 부엌을 중심으로 좌우에 내옥(동옥 또는 서옥)을 배치하는 것에서 식당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더 나아가 복도를 통해 각 주거기능 공간을 연결하는 개실(個室)형으로 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넷째 쪽구들(炕)이 온통구들화 되고 동시에 그 위에서 쪽상을 사용하는 좌식형태의 식사도 관찰된다.

다음으로 한족 주거와 조선족 주거와의 변화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점과 차이점이 관찰된다.

70년대까지 한족 농촌주택의 평면 변화는 없으나, 조선족 주택에서는 외양간이 소멸된다. 1980~1990년대 한족주택에서는 주거의 쾌적성과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하기 위해 복도로 각 실을 접속하는 개실(個室)형 평면이 등장하는 반면, 조선족 주택은 정지를 중심으로 한 통간(通間)형으로 변한다는 서로 다른 변화과정이 보인다. 그리고 2000년 이후 한족 주택의 일부 침실은 바닥 전체가 온통구들(전면온돌)로 되며, 조선족과 한족 모두 주택 내에서 좌식과 입식을 겸용하는 기거양식으로서의 변화가 관찰된다.

앞선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조선족 주택은 농업생산 중심적인 중국정부정책에 많이 영향을 받은 반면, 광업종사자로 연변지역에 이주한 한족 주거는 생존에 필요한 공간 이외의 부속 공간이 없었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가설이 가능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중국연변지역 한족의 사회인구 통계적 요소의 변화와의 관계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1. 강영환,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住居空間 및 生活方式:용정시 지신향 장계촌을 대상으로, 건축역사학회논문집, 3권 1호, 1994, pp.124-142
2. 고도임 박남희 최형선 윤복자 박경난, 중국 연변 조선족 전통 농가의 시설설비 실태조사 생활, 대한가정학회지, 36권 6호, 1988, pp.123-131
3. 금요찬, 中國 朝鮮族 農村住居의 空間의 特性에 관한 研究, 동양대학교논문집, 6권. pp.25-39
4. 김봉열, 中國 延邊地區 朝鮮族의 마을과 주거, 건축역사학회논문집, 3권2호, 1994. pp.57-82
5. 김수인 김민석 전진숙, 중국 조선족의 주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3권2호, 2003, pp.39-42
6. 김일학 박용환, 조선족 농촌주거 공간구성형태의 지역적 특징에 관한 연구, 농촌계획학회논문집, 15권4호, 2009, pp.75-87
7. 김일학 박용환, 조선족 농촌주거의 부엌공간의 형태와 취사 및 식사방법, 한국주거학회논문집. 21권1호, 2010, pp.11-21
8. 김종영 김수인 김승재 박용환,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구성 형태와 그 지역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논문집,7권1호, 1996, pp.95-103
9. 김준봉, 중국 동북지역 한인동포(조선족) 전통민가 평면의 분류와 특성, 충북대 박사학위논문, 2000
10. 김준봉 김성우 이훈 박은정, 中國 延邊 朝鮮族 傳統民家の 形式的 特性,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6권 7호, 2000. pp.79-86
11. 김준봉 이해대, 김정태, 조선족농촌의 근대화과정에 따른 변화 연구,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12권1호, 2012, pp.55-63
12. 김준봉 김현송 백석중 김준영, 중국 조선족 농촌마을의 공간구성 및 세대별 배치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14권4호, 2012, pp.1-10
13. 백석중 김준봉, 중국 동북지역 조선족 전통민가의 평면유형 분류와 분포 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01, p.5
14. 울산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과, 중국동북지방 조선족 취락

및 주거에 관한 조사연구 - 장재춘, 1995년

15. 李百壽, 延邊地區朝鮮族傳統民居探討, 延邊大學地域建筑与低碳技術研究所 p.1
16. 임금화 김태영 최효승, 중국 연길시 근교 농촌주택의 변천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2005, pp.61-72
17. 임금화 서승현 김태영, 두만강 북안 조선족 이수마을 주택평면의 변화,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0권 1호, 2008, pp.19-26
18. 장보웅, 中國東北地方朝鮮族의民家研究: 延邊地方朝鮮族自治州를 中心으로, 지리학회논문집, 27권2호, 1996, pp.117-128
19. 허성길 조원석 변경화, 중국조선족 거주환경 관련 연구의 동향분석,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17권 1호, 2015, pp.105-112

접 수 일 자 : 2016. 04. 10

심사완료일자 : 2016. 05. 22

게재확정일자 : 2016. 05. 23